양돈 칼럼

"맥짚어주는 콤퓨터일수록…"

김 인 호
(서울신약 이사)

최근 양돈업에 콤퓨터를 이용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다. 기억력이나 계산력이 보통사람의 수준을 넘고 있어, 그러한 초능력을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콤퓨터 용도를 조직원 개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용되어져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이용되어지는 예와 "일이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몽용으로 이용되어져야 바람직하다.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워 저마다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만 기여해도 목적달성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콤퓨터가 감시 용도여서는 콤퓨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꼴이 되고 만다. 과거와 현재를 거울삼아 미래를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용도로 이용되어져야 바람직하다. 이렇듯 콤퓨터는 이용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사업을 화목한 상태로 번창시킬 수도 있고, 사업을 일순간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어 악순환되는 경영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

사람들의 잦은 실수는 어쩔 수 없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업장의 분위기라면 그 누군들 배겨날 수 있을 것인가. 콤퓨터는 실수를 모르는 욕심장이와도 같다. 그러한 욕심이 경영주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쪽일 수도 있다. 그러나 100% 최대치를 고집해서는 독재형 경영 쪽으로 치우쳐 일을 그르치고 만다.

경영주는 한 발 물러서고 종사원은 한 발 다가서는 자세 쪽으로 콤퓨터가 중재역할을 하여 자율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하면, 그 후론 인간의 능력이 콤퓨터의 능력을 앞지르게 된다.

양돈경영은 돼지를 사랑하는 몸짓에 따라 실적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애정도(愛情度)를 %(퍼센트)라는 수(數)적 강도로 나타낼 수는 없다. 인간의 잠재능력은 1,000% 목적달성일수도 10,000% 목적달성일 수도 있다고 봐야된

양돈장의 맥은 정문에 있다. 이러한 정문의 출입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여 보면, 언제 어느 때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맥을 짚어주는 콤퓨터일수록 콤퓨터를 이용하는 효과가 크다.

다.

콤퓨터가 제시하는 수치나 뜻이 「빙산의 일각」식으로 함축되어 있어야 계몽용으로 용도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상황만 장황하게 늘어 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는지 혼선을 빚게해서는 곤란하다. 딱 한가지를 짚더라도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콤퓨터가 화면으로 말하는 수치나 언어들은 저마다 맥(脈)의 의미를 지녀야 꿈틀거리는 사업장이 된다. 너무 혼란스럽게 현상나열로 일관되면 어디에 맥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맥을 짚으면 일의 순서도 정해지고 할 일이 보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져야 콤퓨터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돈장의 맥은 정문에 있다(전국적으로 봐서는 소비라는 정문에 있다). 이러한 정문의 출입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여 보면, 언제 어느때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져야 콤퓨터를 제용도로 이용하는 격이 된다. 이렇듯 맥을 짚어주는 콤퓨터일수록 콤퓨터를 이용하는 효과가 크다.

맥을 짚으면 전신에 흐르고 있는 혈액의 움직임이 감지될 수 있고 어느 구석에서 혈액순환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알아내, 그에 따른 투약처방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라야 된다.

예를들면, 「사료량÷출하량×평균사료단가÷0.65=생산비(전국의 경우도 같음)」이라는 수치는 양돈경영의 커다란 맥을 짚어주는 경우와 같다. 이 같은 맥을 짚고 있으면, 사료량이 꿈틀거리는 것과 출하량(비육돈)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사료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허실량을 없게 하면서, 사료의 품질을 향상(사육환경 개선 병행)시켜야 되며, 출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품종개량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보돈선발, 교배적기 포착(초교배체중, ⇧후보돈 훈련 포함), 임신돈 관리, 분만사관리, 육성비육돈관리를 잘하여 출하량을 늘려야 되는 경우의 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성장기별 관리의 표준화 시행이 처방되면 그 후로는 자율성을 띨 수 있게 된다.

판매가를 좌우하는 전국의 상황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소비촉진 방법개선). 이렇듯 콤퓨터를 시장상황에서부터 개개인의 경영까지를 한 묶음으로 하여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큰 맥을 짚어주는 순진한 천재로 만들어 이용하여 보자. 하여 큰 경영인이 되어보자.